

일반 논문

1960년대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

: 연대 강화 행사와 유학생·실습생 교육을 중심으로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북한과 베트남 간 연대 강화 행사와 유학생, 실습생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적 교류 부분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베트남과의 연대를 위한 행사는 총 14가지가 계획, 진행되었으며, 국가적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문화외교 총력전이었다. 베트남과의 연대 행사는 북한의 거의 모든 사회·문화단체가 총망라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업총동맹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북한은 연대 강화 행사들을 베트남 인민들을 정치·경제·도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결정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1968년 상반기 당시 2,500명이 넘는 베트남 유학생·실습생들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김일성은 이들에게 북한에서 배운

* 이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 연구: 북한-베트남-쿠바 연대 외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중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제4장 '북한-베트남-쿠바 자주연대의 발전' 일부분을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이 연구에 소중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지식을 베트남 혁명을 위해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미래 세대들 간 신뢰 형성으로 이어졌다.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는 베트남의 파리평화협상, 호치민 사망 전후 나타났던 정책적 혼란상으로 대변되는 양국 간 긴장관계 속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신뢰의 기억은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대표되는 양국 간 골목집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증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자주연대, 북한, 베트남, 연대 행사, 베트남 유학생 및 실습생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북한과 베트남 간 연대 강화 행사와 유학생, 실습생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적 교류 부분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2000년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하노이 인근 박장지역(Bắc Giang)의 북한군 전사자 묘소를 참배하고 이후 이들의 유해가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처음 확인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 교류는 베트남전쟁과 분리되어 연구될 수 없다. 북한의 대베트남전 참전은 Merle Pribbenow,¹⁾ 도미엔,²⁾

1)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November 2011).

2)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 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집 (2014), 93-133쪽;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베트남전쟁기(1954-1975)년을 중심으로」 『군사』 제96호 (2015), 323-362쪽; 「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전쟁 시기(1954-1975)년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0집 (2015), 307-350쪽; 「1960년대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과 공군·심리전 전문가 파병: 새로 발굴한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

김진환,³⁾ 이신재⁴⁾의 연구를 통해 국내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국내와 베트남의 자료들,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북한의 베트남 전쟁 참전의 국내외적 배경 및 군사 분야 지원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들은 제한된 자료라는 불합리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미개척 분야였던 북한의 대베트남 참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한반도 냉전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북한과 베트남⁵⁾ 간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연구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행 연구들은 북한 연구의 공백을 매웠다는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자료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선행 연구들은 베트남 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물인 것이다. 북한에서 로동신문은 인민들에게 공개되는 외교문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⁶⁾을 감안해봤을 때, 로동신문을 통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1960년대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학문적 기초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기 로동신문 분석 과정 중 양국 간 수많은 사

『화사학연구』 제59집 (2019), 225~263쪽.

- 3) 김진환,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사회와 역사』 no.5 (2015), 41~70쪽.
- 4)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5) 베트남은 베트남으로 지칭되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of South Vietnam: NLF)과 월맹, 베트남으로 지칭되는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겠다.
- 6) Allen S. Whiting and Robert F. Dernberger, *China's Failure: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Mao Era* (New York: McGrawHill, 1977), p.40. 언론매체를 통한 대외 선전선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자세한 내용은 Leighton, *Soviet Propaganda As A Foreign Policy Tool* (Lanham: Freedom House, 1991)을 참고.

회·문화 교류 관련 기사에 주목하였다. 특히 양국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연대 행사들은 북한군의 참전 등과 같은 극비 사항과는 달리 인민들에게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왜 1960년대 베트남과의 사회문화 교류에 집중했을까? 구체적으로 행사들의 종류와 내용들은 무엇이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중국적으로 북한과 베트남 간 외교 통사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베트남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과 군사 분야 지원에 집중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북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문화 분야로의 연구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및 내용분석이며, 연구대상은 북한에서 개최된 베트남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연례행사들과 베트남 유학생들의 교육 현황 및 내용이다. 베트남전쟁은 1964년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으로 인해 본격화되었으며, 1972년에 이르면 파리평화협상으로 인해 사실상 종결되는 양상으로 흘러, 양국 간의 교류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연구 시기는 양국 간 사회문화교류가 활발했던 1960년대로 한정한다.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는 냉전기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적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했던 로동신문과 당시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이 매일 국제 정세와 안보 관련 중 핵심만을 선별해 대통령에게만 보고(the President Eye's Only)했던 일일보고서(daily brief)이다. 북한, 쿠바와 더불어 베트남 또한 ‘자료의 은닉과 비공개’에 매우 능숙한 국가들이다. 그러므로 로동신문과 미국 정보가 취합했던 당대 기밀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한 현실적으로 가용한 자료들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론적 근거로서 북한-베트남-쿠바

간 자주연대 외교 개념을 새로이 정의, 소개하겠다. 3장에서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연 14회 개최된 베트남과의 연대 강화 행사들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는 당시 북한 내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의 교육 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겠다.

II. 이론적 검토: 자주연대 외교

개별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최소 목표와 최대 목표로 구분 가능하며, 최소 목표는 자주와 생존, 최대 목표는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개별국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수단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활용하는데, 그 수단은 내부 노력(경제적 증대, 군사력 증강, 전략 개발), 외부 노력(동맹 강화, 확대 및 약화, 축소)이 있다.⁷⁾ 다시 말해, 자주는 개별 국가들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목표이며, 연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부 노력인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자주(self-reliance)라는 개념은 자율성(autonomy), 독립(independence), 주관적 독립체(subjective entity)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⁸⁾ 국제정치와 대외관계는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서 자신의 '정의'와 '이익'에 의존한다. 국제정치에서 자주(권)은 대외정책 결정과 행위 측면

7)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p. 118-119.

8) B. C. Koh, "North Korea and Its Quest for Autonomy," *Pacific Affair*, vol.87, no.4 (December 2014), p. 766.

에서 주로 정책 입안자의 역할 개념, 국내적 요구와 필요, 외부 환경에 대한 중요한 사안 및 경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⁹⁾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내 정책과 긴밀히 결부되어 국내 정책의 연장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¹⁰⁾ 약소국들은 일반적으로 외세에 안보를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권)은 헤게모니(hegemony)와 자율성(autonomy) 두 요소 간 어느 정도의 '긴장(tens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¹¹⁾ 자주는 다른 국가의 이해와 목적을 위한 것보다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특히 국방과 외교 분야의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한다.¹²⁾ 그러므로 자주는 '국가 이익을 양보하지 않을 권리'로 규정할 수 있다.

자주라는 개념은 북한,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등 주로 경제적 발전이 뒤진 제3세계에 의해 추구된 국가 정책적 개념으로 강대국을 위한 논리는 아니다.¹³⁾ 이러한 이유로 자주는 '존중'을 기반으로 이들 간 '협업(cooperation)'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집단적 자주(collective independence)'는 혁명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를 형성시키기도 한다.¹⁴⁾ 이러한 측면에서 자주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국제적 연대'의 의미

⁹⁾ K. J. Holsti,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14, no.3 (September 1970), p. 243.

¹⁰⁾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벼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2), 106쪽.

¹¹⁾ Jorge I. Domínguez, "US-Cuban Relations in the 1980s: Issues and Politic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27, no.1 (February 1985), p. 27.

¹²⁾ K. J. Holsti,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p. 268; 이상숙, 「중소분쟁 시기 북한과 베트남의 자주외교 비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8), 54쪽.

¹³⁾ Surendra J. Patel, "Collective Self-Reliance of Developing Countrie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13, no.4 (December 1975), pp. 569-570.

¹⁴⁾ Ibid, p. 583.

도 포함한다.

국제정치에서 연대(solidarity)는 공통의 이익, 주제,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형성된 단결체로서 ‘상호 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¹⁵⁾ 연대는 평등, 상호협력, 공유된 도덕적 커뮤니티 멤버십에 기반하며,¹⁶⁾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묘사하는 방식이므로 항상 그와 관련된 정치적 어젠다를 가진다.¹⁷⁾ 국경을 초월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집단으로 구성된 것이냐, 스스로 선택한 것이냐, 강요된 것이냐, 실행 목표가 현실적이냐 이상적이냐는 연대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단결’, ‘이를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 연대는 구성원들의 말하는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므로 다소 급진적이고 확장적인 변화들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¹⁸⁾

다른 집단·국가로부터 연대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치, 외교적인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 집단·국가들에게는 ‘자원(resource)과 힘(power)에 대한 공동 활용’을 통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¹⁹⁾ 특히 약소국의 경우 양자관계보다는 다자관계를 더 선

¹⁵⁾ Joan Clingan, “Project Demonstrating Excellence-Who is We? Toward a Theory of Solidarity: Toward a Future of Sustainability,” (Ph.D Diss., Union Institute & University, 2007), pp. 1-2.

¹⁶⁾ Toni Weis, “The Politics Machine: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East German Support for SWAPO,”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vol.37, no.2 (June 2011), p. 352.

¹⁷⁾ Erin Elizabeth O’Brien, “They Have To Take The Long Way To The Shortcut, too: The Politics of Solidarity and Identity,” (Ph.D Diss., The American University, 2016), pp. 1-2.

¹⁸⁾ Joan Clingan, “Project Demonstrating Excellence-Who is We? Toward a Theory of Solidarity: Toward a Future of Sustainability,” pp. 124-125.

¹⁹⁾ Erin Elizabeth O’Brien, “They Have To Take The Long Way To The Shortcut, too: The Politics of Solidarity and Identity,” pp. 124-125.

호하며 이를 국가관계에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²⁰⁾ 3자 상호 협력(trilateralism)의 경우 양자 간 연대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협력 방식, 예를 들어 3자 간 더 효율적인 소통, 규칙, 규범, 합의 등을 필요로 한다.²¹⁾ 이러한 의미에서 약소국들에게 연대는 생존을 위한 유용한 대안이며, 약소국 간의 강력한 연대는 국제정치에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²²⁾

이러한 연대에서 제기된 공동 이슈에 대해 공동의 정책적 입장을 유지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중요하다.²³⁾ 이러한 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이 이것을 제거하거나 조정함으로써 그들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이러한 의미에서 약소국의 연대는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피압박 민족들의 이익공동체이다. 이것은 약소국의 ‘연대’가 ‘자유를 위한 혁명’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⁵⁾ 정리해보면, 국제정치학에서 ‘자주연대’는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해당 그룹·국가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 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혁명적 결사체로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자주(권)을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대내, 대외적 문제들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예속되지 않는 국가나 민족의 권리이며, 이것은 매개 나라의 정치 경제적 자립성을 보

²⁰⁾ Lloyd Jensen, *Explaining Foreign Polic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 230.

²¹⁾ Marilyn Annette Madison, “A Trilateral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Afro-Arab Solidarity,”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5), pp. 3-5.

²²⁾ Lloyd Jensen, *Explaining Foreign Policy*, p. 224.

²³⁾ Keisuke Iida, “Third World Solidarity: The Group of 77 in the UN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2, no.2 (Spring 1988), pp. 375-377.

²⁴⁾ Ken Reshaur, “Concepts of Solidarity in the Political Theory of Hannah Arendt,”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5, no.4 (December 1992), pp. 724-725.

²⁵⁾ Han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3), p. 84.

장하는 기본'이라고 정의하였다.²⁶⁾ 1970년대에는 자주(권)은 '정치적 자주성의 구현이며, 민족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으로 정의하며 체제 보위의 의미를 강화시켰다.²⁷⁾ 북한은 연대(성)에 대해서도 '공동의 이익의 요구로부터 같은 책임을 지고 서로 돕고 단결'하는 연결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²⁸⁾ 북한은 연대(성)에 대해서 '요구'라는 '필요'와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말하는 연대는 '공동 이익을 위한 공동 권리와 의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제정치학 상 연대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베트남, 쿠바는 식민지 경험, 혁명, 전쟁, 분단이라는 공통의 역사·제도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다.²⁹⁾ 자신들과 같은 '사회주의 내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미제로부터 경제,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체제를 위협 당하고 있으며, 평화공존론, 문화혁명과 중소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동맹의 실패로 인해 가장 큰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 세 나라는 자국의 자주노선과 더불어 '사회주의권의 단결'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 전략을 발전시켰다.

비록 대독 빨치산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정권을 자력으로 수립하며 이들 국가들과 유사한 역사·제도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에 대해 이들 나라들은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을 지지하는 친미 성향의 국가로 인식했다. 북한은 유고슬라비아에 대해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에서 와해시키려는 소위 '현대 수정주의'로 규정하고³⁰⁾ 사회주의권에

26) 박순서 편집, 『대중 정치 용어 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296쪽.

27)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724쪽.

2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1377쪽.

29) 1901년 플랫폼수정안(Platt Amendment)에 의해 관타나모(Guantanamo) 지역은 미국에게 영구 할양되었다. 이로 인해 쿠바는 분단국가가 되었다. B. K. Gills, *Korea versus Korea-A Case of Contested Legitim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 107.

서 배제시킬 것으로 요구하였다.³¹⁾ 그러므로 유고슬라비아는 북한이 중심이 된 자주연대에 포함될 수 없었다.

사회주의 약소국인 북한, 베트남, 쿠바는 ‘어떻게 자신들을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집단적 자주와 연대의 핵심은 위기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 시 상호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며,³²⁾ 공동의 목적은 체제 생존과 정치·외교적 자유와 독립이었다. 이들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통해 전략적 우위로써 약소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들을 우세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³³⁾

본 연구가 제시하는 ‘자주연대’라는 개념은 학문적으로 새로운 용어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의 자주와 연대, 북한(학)에서의 자주와 연대에 대한 학문적 이해, 북한, 베트남, 쿠바가 공유했던 ‘자주’와 ‘연대’의 목적, 필요성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종합해 ‘자주연대’를 ‘자주를 추구하며 사회주의 약소국 간의 연대’로 정의하기로 한다. 왈츠(Kenneth N. Waltz)의 개념에 근거해 판단해보면 ‘자주연대’는 ‘자주’라는 ‘목표’와 ‘연대’라는 ‘수단’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다. ‘자주연대’는 냉전기 사회주의 약소국들인 북한, 베트남, 쿠바가 자신들이 처한 체제 위기에 공동 대응, 관리하기 위한 초국가적 공동 생존전략의 성격의 가지고 있다.

30) “사설-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가치를 더욱 높이 들자,” 『로동신문』 1962년 11월 17일.

31)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66년 10월 6일.

32) Richard J. Samuels,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 82.

33) Lloyd Jensen, *Explaining Foreign Policy*, p. 216.

Ⅲ. 연대 강화 행사의 종류와 내용

외교에서 '연대(성) 행사'는 관련 국가들 간 진정한 친선, 우정을 표시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960년대 북한과 베트남은 연대 행사들을 자신들의 반제·반미투쟁노선을 정당화하고 국내의 동원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기제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전쟁을 대미 항전을 통해 소련이 스스로 수정주의의 후과를 청산하고, 베트남 보위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가 단결하며, 남한에서 남베트남식 혁명역량 강화를 기대했었다. 이 당시 북한과 베트남 간 밀착관계는 자주연대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을 통한 사회주의권 단결이라는 양국 간 이해관계 일치, 중소분쟁으로 인한 대응 기제로 자주노선의 강화·발전의 필요성, 남한의 대베트남 파병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분계선 상의 지속적인 무력 충돌 등이 복합된 결과였다.

북한은 미국이 인도차이나와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진행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베트남전쟁과 '제2의 한국전쟁'은 자신들과 같이 작고 갓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분단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계획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에게 베트남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에게 치명적인 정치·군사적 피해를 입혀 자신에게 가해질 미래의 안보위협, 즉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의 대리전이였다.³⁴⁾ 그러므로 북한은 경제·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통해 군인들 중심의 베트남전쟁을 체제 역량을 총동원하는 '인민 중심의 전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양국 간 식민지 경험, 혁명, 분단, 전쟁이라는 공동의 역사·제도적 배경을 공유는 사

34) 김진환,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54~55쪽.

회·문화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었다.

연대 행사들은 주로 북한과 베트남의 직능단체 및 친선협회 등과 같은 사회·문화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 행사들은 ‘양국 인민들과의 연대 강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회·문화단체가 주최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양국의 당과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하며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이 행사들에서는 양국 지도자의 초상화를 게시하고 국가를 연주하는 등 엄연히 양국 간 국가공식 행사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므로 주관 사회·문화단체들은 양국의 당·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대 행사는 당·정부·인민이 하나되어 진행하는 ‘총력전 형태의 외교’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 행사들은 절차, 형태, 내용면에서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연대 행사들은 진행 기간(한 달, 보름, 열흘, 당일 등)에 따라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평양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의 당·정부의 국가기관, 경제 생산단위, 사회·문화기관 및 단체, 학교, 군부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연대 행사들이 대부분 양국 사회·문화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지만, 대규모 군중대회의 경우 각 지역 인민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다.

둘째, 연대 행사에는 일반적으로 양국 국가 연주, 행사 주최 단위 대표 혹은 주요 정치인들 연설, 양국 외교사절의 연설, 행사 주최 단위 소속인 혹은 유학생들의 발언, 영화 감상회, 사진 전람회 혹은 상대국 관련 기관·단체들과 자국 내 상대국 대사관에 보내는 결의문, 편지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이 행사들에서는 양국의 외교역사,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양국 간의 경제·사회·군사적 지원에 대한 감사 및 해당국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 의사, 양국의 당과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성과에 대한 통보 및 찬양에 대한 내용이 의례상 포함되었다.

셋째, 연대 행사는 전쟁 상황 따라 행사의 의미와 형식, 중요도가 달라

지기도 하였다. 통킹만 사건 이전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 교류 행사는 7월 20일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베트남 인민의 반미구국 투쟁 지지 월간과 9월 2일 북베트남 정부 수립 기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통킹만 사건 이후 베트남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양국 간 연대 행사의 종류와 형식은 전쟁 수위에 따라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북한에게 베트남과의 연대 행사는 특정 국가와 관련 가장 많은 가장 횟수와 국가적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문화외교 총력전이었다. 북한은 대베트남 연대 강화를 위해 총 14가지 행사를 계획, 진행하였다. 행사 목록은 <표 1>과 같다. 행사는 당시 베트남전쟁의 상황을 반영하여 베트남 인민들을 정치·경제·도덕적 지지의 효과가 큰 행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4월과 11월을 제외한 10개월이 행사 대상 기간이었으며 계획된 기념일(행사) 이외에도 수시로 이루어졌던 베트남 인사들의 정기, 비정기적 방문까지 종합해 보면 이는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중 가장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베트남전쟁기 베트남과 더불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쿠바의 경우도 ‘쿠바와의 연대 행사’가 1년에 총 7가지의 연대 행사가 계획, 진행³⁵⁾ 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해봤을 때도 두 배 이상이나 되는 많은 규모였다.

연대 행사의 기간은 당일, 주간, 순간(10일), 월간 등으로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주간 행사는 ‘3월 3대륙 인민단결기구에서 권고한 월남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의 연대성 회의’, ‘3월 월남 인민과의 반

35) 쿠바와의 연대 행사는 아래와 같다. ① 1월 1일 쿠바 혁명 승리 기념, ② 1월 3일-10일 3대륙 인민단결기구 주최 3대륙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국제 연대성 주간 행사, ③ 2월 4일 제2의 하바나 선언 기념, ④ 4월 19일 피그만 침공 승리 기념, ⑤ 7월 26일 몬카다 병영 습격일 기념, ⑥ 8월 29일 북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기념, ⑦ 12월 2일 쿠바 혁명군 창건일 기념.

미구국 투쟁 지지 주간, '9월 조선-월남 친선 주간, 순·월간 행사는 7월 월남 인민과의 반미 구국 투쟁 지지 순·월간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당일 행사로 진행되었다.³⁶⁾ 일반적으로 당일 행사의 경우 주로 영화 감상회,³⁷⁾ 모임, 강연회,³⁸⁾ 로동신문 사설이나 관련 기사를 통해 베트남 기념일에 대해 소개하고 그것이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베트남전쟁기 미군의 공세 수위와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의 연대를 위한 국제회의, 행사' 등을 별도로 수시 개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은 1년 내내 베트남과의 연대 행사를 준비, 진행하였다.³⁹⁾

이 행사들은 그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주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4대 근로단체 중앙위원회, 조선 아세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조선 남부 월남 인민투쟁 지지 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선-월남친선협회, 월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 투쟁 위원회 등 북한의 거의 모든 사회단체들

36)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을 <<월남 인민의 반미 구국 투쟁지지 주간>>을 설정-월남에 관한 제네바협정 체결 1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의 연합회의에서," 『로동신문』 1966년 7월 11일; "반미투쟁에서 언제나 월남 인민과 함께!-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영웅적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각지에서 광범히 진행," 『로동신문』 1966년 7월 14일.

37) "월남 인민군 창건 18주년에 제하여 조선 주재 월남 민주 공화국 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 진행," 『로동신문』 1962년 12월 23일; "뎐 벤 푸 전투 승리 10주년에 제하여 평양 시내 영화관들에서 월남 영화를 상영," 『로동신문』 1964년 5월 7일.

38) "조선과 월남 두 나라 인민들과 군대들간에 맺어진 친선단결은 영원불멸할 것이다-조선인민군 구분대들에서 월남인민군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모임과 강연회들이 있었다," 『로동신문』 1968년 12월 22일.

39) "사설-전 세계 인민들은 영웅적 월남 인민과 함께 있다," 『로동신문』 1964년 11월 25일; "김일성 수상께서 월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회의에 축전,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월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회의에 축전,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월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회의에 전문," 『로동신문』 1964년 11월 25일.

이 공동주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⁴⁰⁾

〈표 1〉 북한의 대베트남 연대 행사 목록

회수	날짜 (발생년도)	행사명(로동신문상 표기)	내용
1	1월 31일 (1950년)	민주월남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외교관계 설정	북한-베트남 정부간 외교관계 수립 기념일
2	2월 3일 (1930년)	민주월남노동당 창건일	베트남 노동당 창립 기념일
3	2월 15일 (1961년)	남부 월남 인민무장해방력 통합 기념	남베트남 내 반미, 반제를 위한 항전 세력 통일
4	3월 13-19일 (1966년)	3대륙 인민단결기구: 월남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의 연대성 회의 주간	3대륙 인민들의 대베트남 지지 호소 주간
5	3월 19일 (1950년)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 투쟁지주 주간	베트남 사태에 대한 미국의 최초 개입을 비난
6	5월 7일 (1954년)	덴벤푸 승리 기념	디엔 비엔 푸 전투 승리 기념
7	6월 6일 (1969년)	남부월남공화 립시혁명정부 수립 기념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수립 기념
8	7월 20일 (1954년)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 투쟁지주 월간	제네바 협정 조인일 기념
9	8월 19일 (1945년)	8월 혁명 승리 기념일	호치민을 중심으로 반외세 투쟁을 통한 승리 기념

40) “형제적 월남 인민의 민족적 명절을 열렬히 축하한다-월남민주공화국 창건 18 주년을 기념하여 미술전람회, 영화감상회 진행,” 『로동신문』 1963년 9월 2일;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당장 물러가라!-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영웅적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로동신문』 1965년 7월 21일; “조선 인민과 월남 인민 간의 전투적 친선 단결은 불패이다-조선-월남 친선협회 창립대회 진행,” 『로동신문』 1965년 8월 28일;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을 <월남 인민의 반미 구국 투쟁지주 주간>을 설정-월남에 관한 제네바협정 체결 1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의 연합회의에서,” 『로동신문』 1966년 7월 11일; “우리 나라에서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주주간을 설정,” 『로동신문』 1972년 7월 14일.

10	9월 2일 (1948년)	조선-월남 친선 주간: 민주월남 공화국 창건일	베트남 정부 수립일 기념
11	10월 14일 (1964년)	남부월남 영웅 '느구엔 반 트로 이' 추모 행사	남베트남 항미 영웅 '느구엔 반 트로이' 추모 행사
12	12월 19일 (1946.12.19- 1954.08.01)	프랑스 식민주의 침략자들을 반 대하는 항쟁 기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개시
13	12월 20일 (1944년)	월남 인민군 창건일	베트남 군대 창건 기념일
14	12월 22일 (1960년)	남부 월남 인민의 투쟁지지 주 간: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창립 기념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창립 기 념일

출처: “형제적 친선, 불패의 단결,” 『로동신문』 1965년 1월 31일; “사설-월남 로동당 창건 3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1965년 2월 3일; “공동의 원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선과 월남 두 나라 당과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은 더욱 강화발전될 것이다. 월남로동당 창건 마흔둠 평양시 기념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9년 2월 3일; “영웅적 남부월남해방군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영광스러운 전투행로-남부월남해방무장력통합 여섯 뿔을 맞으며,” 『로동신문』 1967년 2월 15일; “중앙 극장무대들에서 월남에 관한 연극 작품들을 공연-월남 인민의 반미 구국투쟁 지지 주간에 제하여,” 『로동신문』 1966년 3월 16일; “조선인민은 월남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다. 영웅적 월남 인민이 미제 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 적극 지원할 것이다.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7년 3월 19일; “사설-영웅적 인민의 위대한 승리-월남 인민의 텐 벤 푸 전투 승리 11주년에 제하여,” 『로동신문』 1965년 5월 7일; “조선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아세아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형제적 월남 인민과 굳게 손잡고 견결히 싸워 나갈 것이다,” 『로동신문』 1970년 6월 5일; “공동의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 침략을 규탄하며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각지에서 계속 진행,” 『로동신문』 1962년 7월 19일; “월남 인민의 영웅적항쟁은 필승불패이다. 영광스러운 8월 혁명 22주년,” 『로동신문』 1967년 8월 19일; “월남 인민의 민족적 명절을 축하한다-월남 민주공화국 창건 17주년 기념,” 『로동신문』 1962년 9월 2일; “월남 인민과 청년들은 정의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남부 월남 애국 청년 느구엔 반 트로이 영웅 피살 1주년에 제하여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진행,” 『로동신문』 1965년 10월 16일; “월남 인민군 창건 2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 진행-조선인민군 구분대들에서,” 『로동신문』 1964년 12월 19일; “미제는 조선전쟁에서처럼 월남에서도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남부 월남 민족해방전선 창건 4주년을 기념하는 강연회 진행,” 『로동신문』 1964년 12월 19일을 종합해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

특히 조선 남부 월남 인민투쟁 지지위원회의 경우 전국 단위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으며,⁴¹⁾ 조선-월남친선협회의 경우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고등교육부상,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외무성 3국 부국장이 협회 부위원장단에 포함되었다.⁴²⁾ 이는 사회·문화단체 및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정부도 실무적인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월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 투쟁위원회의 경우, 조선법률가협회, 조선적십자회,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및 4대 근로단체 중앙위원회까지 포함되었다.⁴³⁾ 이는 베트남과의 연대 행사는 북한의 사회·문화 단체·기관들이 총망라되어 총력전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과의 연대 행사가 북한의 거의 모든 사회·문화 단체가 총망라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업총동맹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월룡은 조선 아세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 조선 남부 월남인민 투쟁지 지원회, 미제의 죄행반대 투쟁위원회까지 총 4개 단체를 총괄하며 북한과 베트남 연대 외교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였다.⁴⁴⁾ 그는 1966년 1월 하바나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인민단결회의(Tri-continental)에도 북한 대표단장으로 파견되었으며,⁴⁵⁾ 북한-베트남-쿠바 자주연대 외

41) “남부 월남 민족해방전선 창건 5주년에 제하여-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위업을 위해 싸우는 월남 인민의 편에 서 있다-각지에서 기념회 진행,” 『로동신문』 1965년 12월 20일.

42) “월남 민주공화국 창건 20주년을 기념하여-사진전람회와 영화 감상회 진행,” 『로동신문』 1965년 8월 31일.

43) “우리 나라에서 <<월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투쟁 조선위원회>>를 결성,” 『로동신문』 1966년 8월 6일.

44) “우리 나라에서 <<월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투쟁 조선위원회>>를 결성,” 『로동신문』 1966년 8월 6일.

45) “3대륙 인민들은 반제, 반미, 반식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굳게 단결하여

교의 핵심 인물이었다.

직업총동맹이 베트남과의 연대 행사를 사실상 총괄하게 된 배경에는 이 행사의 목적이 양국 간 인민들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의 대베트남의 경제, 사회·문화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으므로 직총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회분야 성과가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간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생산성과 독려 및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직총이 중심이 되어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였다.

연대 행사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베트남은 ‘북한의 혁명과 그 성과로 베트남의 혁명과 그 성과로 인식’, ‘동등한 사상과 목적으로 굳게 단련된 혁명적 전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형제적인 친선과 단결’, ‘승리에 대한 확신’, ‘모든 형태의 지원’,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용허하지 않는 것’, ‘북한의 지원에 대한 감사’ 등이었다. 연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달은 7월이었다. 7월은 북한의 정전협정 조인일(27일), 베트남의 ‘베트남 판 정전협정’인 제네바 협정 체결일(20일)이 있었다. 북한, 베트남의 언론과 매체는 이러한 의미를 대거 부각시키며 양국 연대 행사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⁴⁶⁾ 이것은 양국이 혁명의 목표, 원칙, 과정, 성과까지 공유하기 위해 이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투쟁하자! 3대륙 인민단결대회 제4일 회의에서 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의 연설, 『로동신문』 1966년 1월 9일. 김왈룡은 박금철, 이효순을 따르는 소위 갑산계열 인물이었다. 박금철과 이효순은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숙청되지만, 김왈룡은 그들이 숙청된 이후에도 약 1년 동안 위직책들을 가지고 활동했을 정도로 김일성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로 보인다. 그는 북한-베트남-쿠바 간 자주연대 외교에서 북한 대표의 자격으로 자주 활동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인물 정보는 당시 로동신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냉전사 영역에서 김왈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⁴⁶⁾ “조선 인민의 지원은 월남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월남 <<인민>>지가 강조,” 『로동신문』 1965년 7월 30일.

연대 행사의 중심에는 북한과 베트남 간 사회주의 경쟁 등 연대를 맺은 국가 기관 및 사회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모범이었다. 이들 단체들은 실제로 행사를 위해 하노이를 방문하거나 혹은 베트남 내 자신들의 연대기관 구성원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다.⁴⁷⁾ 이들은 연대 강화 행사와 관련한 인사들보다 더 평양을 수시로 방문, 체류하였다. 베트남에서 온 연대 기관 구성원들은 전쟁의 상황, 성과 및 피해, 인민들의 생활상 등 다양한 정보를 북한 사회·문화 기관·단체와 공유하였으며, 전쟁 중 자신들이 달성한 성과를 소개하였다. 반대로 하노이를 다녀온 북한의 사회·문화 기관·단체 구성원들은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 의지와 성과를 북한 사회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다.

〈표 2〉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과 베트남 간 기관별 연대 체결 현황

NO	북한	베트남	비고 ⁴⁸⁾
1	강건종합군관학교	월남 륙군군관학교	친선관계 맺고 상호 서한을 교환
2	평양건설기계공장	하노이 동아인기계공장 (이후 하노이 동안건축기계공장으로 개칭)	친선관계 수립
3	김책공업대학	하노이 공과대학	친선관계 수립
4	평양방직공장	남 딘 방직공장	경쟁운동 체결
5	평양 동흥중학교	하노이 원천중학교	자매결연
6	만경대직물공장 (이후 12월 1일 직물공장으로 개칭)	남 딘 민생방직공장	친선관계 수립
7	조월친선잡진협동농장	월남조선친선 탄 푸엥 농업협동조합	연대성 지지 서한 교환

47) “월남 전우들의 사기는 좋다.평양방직공장에서 월남에 갔다온 이 공장 대표단의 귀환보고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7년 1월 14일.

8	룡성기계공장	하이퐁시 연해기계공장	연대성 지지 서한 교환
9	조선웰남친선룡오협동농장	웰남조선친선 춘라농업협동농장	친선편지 교환

출처: “웰남인민군 창건 스물일곱돛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연태영 소속 구분대에서 군인모임이 있었다,” 『로동신문』 1971년 12월 21일; “조선문제 해결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과 조치를 지지한다.6.25 16돛에 제하여 웰남 륝군군관학 교에서 집회 진행,” 『로동신문』 1966년 7월 2일; “평양건설기계공장에서 하노이동안건축기계공장과 친선적 관계를 설정,” 『로동신문』 1966년 9월 16일; “미제의 야수적 죄행은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이다-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영웅적 웰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각지에서 계속 진행,” 『로동신문』 1966년 7월 15일; “불굴의 투쟁정신과 애국전통을 가진 영웅적 웰남 인민의 힘은 불패이다-웰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평양 동흥중학교 교직원, 학생집회,” 『로동신문』 1967년 3월 15일; “미제 침략자들이 웰남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조-웰 두 나라 인민은 어깨걸고 싸울 것이다.평양방직공장과 김책공업대학에서 웰남 민주공화국 창건 스물한 돛을 기념하여 친선모임,” 『로동신문』 1966년 8월 26일; “조선인민은 미제가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 할수록 웰남 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을 지지할 것이다-웰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평남도 강서군 잠진협동농장 농장원들의 집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7년 7월 17일; “영웅적 웰남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영웅적 웰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여 룡성기계공장에서 종업원 집회 진행,” 『로동신문』 1967년 7월 18일; “웰남 형제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웰남민주공화국 창건 22주년을 기념하는 친선모임이 조선웰남친선룡오협동농장에서 있었다,” 『로동신문』 1967년 8월 28일을 종합해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

이 행사들에는 주북 베트남 대사(부재 시 임시 대리대사 참석) 및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 대표(이후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대사가 반드시 참석하였다. 이들은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행사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연설을 통해 양국의 우의와 단결, 북한의 경제·군사·사회적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남베트남의 이러한 단결된 행동은 분단과 대립의 현실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 확보 및 남한 내 혁명역량 강화의 필요성, 더 나아가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48) 로동신문상의 표기임을 밝힌다.

특히 이들은 연설 도중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와 북한 인민의 혁명성·영웅성, 김일성의 어록을 인용하거나 김일성에 대한 극도의 존칭을 사용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에게 김일성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 북한 인민들에게 대베트남 지원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⁴⁹⁾ 이로 인해 북한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명분과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연대 강화 행사들은 베트남 인민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기회로도 활용되었다. 연대 기관들 간의 관계는 주로 북한이 자신들의 관련 분야 선진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경제·사회 생산단위들이 이에 보답하기 위한 자체 증산운동 혹은 북한과의 사회주의 경쟁을 체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⁵⁰⁾ 북한과 사회주의 경쟁을 체결한 연대 기관들은 대부분 베트남 내에서 높은 생산성과를 달성해 정부로부터 전승훈장을 수여받는 등 중요한 경제·사회 생산단위들이었다.⁵¹⁾ 이 시설들의 경우 미국의 폭격에 의한 피해가

49) “조선인민은 미제가 월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 할수록 월남 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을 지지할 것이다-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평남도 강서군 잠진협동농장 농장원들의 집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7년 7월 17일;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조선인민군의 불굴의 영웅적 투쟁은 월남 인민과 군대에게 있어서 배워야 할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월남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만경대와 시내 교육, 문화기관들을 돌아보았다,” 『로동신문』 1968년 10월 22일.

50) “월남 남 디 방직공장 대표단이 평양에 왔다,” 『로동신문』 1968년 5월 5일; “조선인민은 반미공동투쟁에서 영원히 월남 인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평양방직공장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월남의 남 디방직공장대표단을 환영하는 모임이 있었다,” 『로동신문』 1968년 5월 5일.

51) “조선인민은 월남형제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할 것이다-평양방직공장과 월남 남 디방직공장간에 맺어진 사회주의친선경쟁체결 10주년 및 1967년도 경쟁총화를 위한 평양방직공장 종업원회의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8년 5월 20일.

자주 발생했으며, 북한은 이 시설들에 대해 피해복구 부담과 증산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은 전후 복구 경험이 있던 북한으로부터 이에 대한 계획 및 방법을 전수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북한은 이들의 북한 내 현장 견학과 참관 허용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⁵²⁾ 중요하게도 북한은 1960년부터 하노이 외곽 지역에 기계와 기술 전문가들을 파견해 다층 주택, 학교, 영화관 등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전후 복구 건설의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의 도시 건설을 지원한 바 있었다.⁵³⁾

또한 당시 북한은 베트남과 ‘응우옌 반 쏘이(Nguyen Van Troi)⁵⁴⁾’라는 전쟁 영웅을 공유하면서 북한은 주요 생산경제단위 내 일부 기계의 이름을 ‘느구옌 반 트로이’로 명명하였다. 북한은 연대 행사를 위해 방북한 베트남 시찰단원들에게 해당 기계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베트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주’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경제건설 노선의 정당성과 성과도 과시하였다.⁵⁵⁾ 그러므로 북한과 베트남 간 연대의 행사는 도덕과 혁명의 원칙, 규율이라는 양국 간 외교관계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행사진행의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보통 3월 12일-19일까지 열린 베트남 인민과의 연대성 주간 행사는 조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52) “조월 량국 인민 간의 친선단결은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 속에서 더욱 공고 발전되고 있다. 함남도 인민위원회와 함흥시 인민위원회에서 월남 민주공화국 인민회의 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배설,” 『로동신문』 1965년 8월 2일.

53) “친선의 도시,” 『로동신문』 1963년 9월 2일. 이 건설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다.

54) 북한식 표기는 ‘느구옌 반 트로이’이나 여기서는 베트남 인명에 대한 한글 표기는 베트남어 발음에 가깝도록 표기했다.

55) “비날론 공장은 용감하고 재능있는 조선인민이 결심만 하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월남 민주공화국 인민회의 대표단 본궁 2.8비날론 공장을 참관,” 『로동신문』 1965년 8월 2일.

직총 중앙위원회, 농근맹 중앙위원회, 사로청 중앙위원회, 녀맹 중앙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월남친선협회, 조선남부월남인민투쟁지지위원회 중앙위원회, 월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투쟁조선위원회 등 총 9개 단체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⁵⁶⁾ 김일성은 연대성주간 행사 기간에 직접 호지민에게 전문을 보내어 베트남 인민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격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⁵⁷⁾ 이는 연대 행사가 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 간 신뢰형성의 기제였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평양에서는 지지 주간 행사의 하나로 평양시민 및 근로자, 군인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북 베트남 대사 및 베트남의 주요 인사들, 해당국 유학생 등을 평양으로 초청해 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군중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지 주간 내내 각 시·도와 북한의 중요 생산단위들, 베트남의 이름을 딴 공장·기업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베트남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은 이 연대 행사들에 참석하느라 매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사회·문화단체들은 베트남 내 관련 사회·문화단체에 지지 서한이나 전문을 발송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직총 중앙위원회는 베트남의 베트남총공회,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내 남베트남 해방노동동맹에게 지지 서한이나 전문을 발송하는 형식이였다.⁵⁸⁾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이 연대 행사들을 ‘사회주의 대가정’을 만들어

56) “우리 나라에서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이 설정되었다-월남 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69년 3월 12일.

57) “김일성동지께서 호志明동지에서 전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969년 3월 18일.

58) “공동의 원수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우는 형제적 월남 인민에게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월남의 해당 사회단체들에 전문과 편지,” 『로동신문』 1967년 3월 18일.

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연대 행사에 대해서 ‘사회주의 대가정’ 속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국내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던 용어의 ‘국제화’를 시도하였다.⁵⁹⁾ 이것은 북한이 베트남과의 연대 행사를 통해 베트남 지원 목적 아래 사회주의권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 하고, 자주연대 외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연대 기관들은 북한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국제적 인전대’였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자주연대 외교로 인해 자주는 더욱 ‘도덕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어 신뢰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연대 행사는 자주연대 외교에 대해 인민들로부터 정치적 동의를 받는 과정이었으며, 양국 간 각종 지원과 협력의 정당성을 인민들로부터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다시 말해, 연대 행사들은 자주연대 외교의 정당성을 갱신시키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대베트남 연대 강화 행사들은 1968년 11월부터 시작된 파리평화협상(Paris Peace Talk)에 대한 북한과 베트남 간 이견과 호치민의 사망 이후 발생했던 정책적 혼란상에 대한 북한의 불만으로 대변되는 양국 간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⁶⁰⁾ 북한은 미국과 베트남 간 파리평화협상에 대해 기존 베트남의 인식, 즉 평화협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입장과 분명 대치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미국에게 소위 ‘놀아나고 있다’고 판단했다.⁶¹⁾ 북한은 베트남의 이러한 입장 변

59) “공동의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자-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 침략을 규탄하며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각지에서 계속 진행,” 『로동신문』 1962년 7월 19일.

60)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03_September_1969,”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5: 닉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9_09-10』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8), 23-25쪽.

61) “미제가 침략전쟁을 계속하는 한 월남 인민은 끝까지 단호하게 항전을 진행할 것이다-월남 외교부 대변인이 미제의 기만적 <평화노력>을 규탄하여 성명,” 『로동신문』 1966년 1월 6일.

화가 베트남전쟁 활용이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⁶²⁾ 당시 북한의 대북베트남의 경제·군사무상 지원액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북베트남 정부도 파리평화협상으로 대표되는 항미통일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관점 변화라고 판단했다. 북한은 이 시기 북베트남에 대한 무상 지원액을 1968년 5.7백만 루블에서 1969년 4.7백만 루블, 1970년 1.9백만 루블로 점점 감소시켰다.⁶³⁾

양국 간 이러한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1년에 14차례 기획되었던 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물론 1970년을 기준으로 ‘응우옌 반 쯔이(Nguyen Van Troi)’라는 전쟁 영웅의 정신의 공유하는 행사는 사라졌으나, 나머지 13가지 기념 행사들은 기존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북한과 베트남 간 전쟁정책 인식 차이와 호치민 사망 전후 야기된 정책적 혼란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미 항전을 통한 자주 노선의 강화, 이를 통한 사회주의 약소국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양국 간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베트남에 대한 유·무상의 지원을 지속해 나갔던 것은 사회문화 행사를 통해 형성된 양국 간 신뢰의 결과로 보여진다.

62) Balázs Szalontai, “In the Shadow of Vietnam: A New Look at North Korea’s Militant Strategy, 1962-197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4:4 (Fall 2012), p. 152.

63)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100쪽.

IV. 북한 내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 교육

양국 간 문화교류협정은 양국 간 과학, 교육, 문학,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⁶⁴⁾ 통상적으로 이 협정은 북한에서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이, 베트남 측으로는 주북 베트남 대사가 직접 사인하였다.⁶⁵⁾ 이 협정은 2-6월 사이에 체결되어 하반기부터 실행되었다. 문화교류협정에 의거해 하노이와 평양을 방문한 양국 문화교류 대표단은 김일성과 호치민으로부터 직접 접견을 받는 등 양국을 대표하는 친선 사절단으로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⁶⁶⁾

북한은 쿠바와 함께 베트남의 유학생, 실습생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열정적이었다. 북한은 문화교류협정(북한식 표현 ‘문화교류 계획서’)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유학생, 실습생을 유치하였다. 이 문화교류 협정에서 양국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베트남의 혁명 예비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에 대한 대우문제는 양국 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상대방이나 제3자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파견국에 자국 지도자의 선집 등 자료가 없을 경우 자국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오해는 파견의뢰국의 ‘자주’에 대한 간섭을 시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⁶⁷⁾

64) “우리 나라와 월남 민주공화국 간의 1964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하노이에서 조인,” 『로동신문』 1964년 2월 7일.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간의 1970년도 문화교류 계획서가 조인되었다,” 『로동신문』 1970년 6월 29일.

66) “우리 나라 수영 선수단 월남 민주공화국 호지명 주석을 방문,” 『로동신문』 1964년 6월 22일.

대표적인 예로 중국 공산당은 1965년 5월 레닌그라드(Leningrad)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들의 시위가 소련 정부로 인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이 사건을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 악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벌어진 바 없었다. 이것은 베트남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자국도 아닌 소련에 파견된 자국 유학생들을 외교적으로 악용해 베트남과 소련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 위한 왜곡된 이간질 사건이었다.⁶⁸⁾ 유학생들의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주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과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이 중국과 소련에 파견된 유학생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악용의 문제는 ‘기우’에 불과했다. 베트남 유학생 및 실습생들의 파견은 전쟁 수행을 위한 전문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라는 국가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 전쟁 수행 과정과 전후 복구 차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숙련된 기술자들의 풀(pool)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⁶⁹⁾

아쉽게도 당시 정확한 연도별 북한 내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들의 수와 유학생의 대상은 (예를 들어 중등부, 고등부 등)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확히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베트남이 당시 해외로 보낸 유학생 관련 자

67)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02_February_1968,”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3: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8_01-03(2)』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323-324쪽.

68)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07_May_1965,”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21: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5_04-06』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222쪽.

69)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14_October_1967,”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1: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7_10-12(1)』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129쪽;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15_March_1968,”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4: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8_01-03(2)』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285쪽.

료,⁷⁰⁾ 당시 북한에 보내졌던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들 수에 대한 일부 자료, 로동신문을 종합해 살펴보도록 하자.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은 전국 단위로 각 주에서 인재들을 골고루 선발해 외국으로 보냈다. 인구가 가장 많은 Nghe An Province의 경우 400명을, 인구가 가장 적은 라오스 국경 인근 Lai Chau와 Lao Cai Province에서는 각각 20명의 유학생들을 선발, 기술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졌다.⁷¹⁾ 당시 베트남의 주(Province)가 31개였음을 상기해볼 때, 베트남 정부가 1년에 해외로 보낸 유학생의 수는 최소 620명, 최대 12,400명 정도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베트남전쟁기 북한 내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 교육 현황

	파견 기관	비고
1	김일성종합대학	유학생
2	함흥화학공업대학	유학생
3	신의주 경공업대학	유학생
4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실습생
5	평양시 교량건설사업소	실습생

⁷⁰⁾ 1967년 당시 베트남 최대의 유학생 파견국가는 소련이었다. 소련은 1967-69년 동안 베트남에 6년간, 약 6,00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장기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500명의 베트남 유학생들은 1968년 8월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의학, 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다. 중국의 경우에도 베트남에게 유학생들 교육, 양성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문화대혁명 시기로 인해 베트남 유학생들은 매우 불합리한 대우와 정치적 위협을 받고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은 채 본국으로 귀환하기도 하였다.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06_March_1968,"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4: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8_01-03(2)』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191쪽.

⁷¹⁾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12_March_1968,"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4: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8_01-03(2)』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249쪽.

6	박명진 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실습생
7	원산농업대학	유학생
8	원산수산대학	유학생 및 베트남 지도교원
9	청진광산금속대학	유학생 및 베트남 지도교원
10	김책공대	유학생
11	평양교원대학	유학생

출처: “월남 민주공화국 정부 경제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 『로동신문』 1966년 1월 18일; “미제는 월남에서 중국적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은 형제적 월남 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앞으로도 계속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다.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군중집회가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로동신문』 1970년 7월 20일;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힘을 합쳐 영웅적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힘껏 돕자. 미제를 치솟는 격분으로 단죄. 형제적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신의주 군중대회와 김책공대 교직원학생집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7년 7월 20일;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창건 7주년에 즈음하여 기념강연회가 있었다. 평양시 교랑건설사업소에서,” 『로동신문』 1967년 12월 20일; “월남형제들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월남 인민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각지 공장, 기업소, 기관들에서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로동신문』 1968년 2월 21일; “조선인민은 반미공동투쟁에서 월남 인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원산농업대학에서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교직원 학생집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8년 2월 24일;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형제적월남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다. 월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개성시군중대회가 있었다, 최영숙동무가 사업하는 공장에서는 종업원 모임을 가지었다,” 『로동신문』 1968년 7월 18일; “최후의 승리는 영웅적 월남인민의 것이다! 조선인민은 공동의 원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할 때까지 월남형제들과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이다. 월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군중대회와 집회들이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로동신문』 1968년 7월 20일; “월남 인민은 반미구국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자 말 것이다.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집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71년 7월 23일; “조선인민은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월남 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할 것이다. 영웅적 월남 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달성하고 있는 승리를 열렬히 축하한다.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신의주시 군중집회와 평양교원대학 교직원, 학생집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72년 7월 20일을 종합해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

1966년 가을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에서만 300명의 베트남 및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⁷²⁾ 베

⁷²⁾ Rinn-Sup Shinn, John B. Folan, John W. Hederson, Marilyn G. Hopkins, Edward

트남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생 및 그들을 지도·관리하는 교원들도 포함해 파견했다. 1968년 1월 당시 2,000명의 베트남 유학생들, 훈련생들이 북한에서 교육받고 있었으며, 2월에는 추가로 500명이 파견되었다.⁷³⁾ 이를 통해 1968년 상반기에만 2,500명이 넘는 베트남의 유학생, 실습생들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베트남 유학생들과 실습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신의주 경공업대학,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평양시 교량건설사업소, 원산농업대학, 원산수산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평양 교원대학 등에 파견되어 교육과 실습을 받았다. 이를 통해 북한 내 베트남 유학생들은 경제, 과학, 화학, 경공업, 교육, 농업, 수산업, 광물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기술을 취득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내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들 중 평양 교량건설사업소에서 교육받던 실습생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베트남전쟁기 폭격대상과 공격 목표를 도로, 철도, 교량 등 주로 교통망에 집중하고 있었다.⁷⁴⁾ 베트남은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수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였는데, 파괴된 도로 및 교량에 대한 복구는 최우선 해결과제였다. 베트남으로서는 도로와 교량은 전쟁 수행을 위해 방어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물들이었다.⁷⁵⁾ 1965년 한 해에만 총 2,179개의 크고 작은 다리가 신

C. Knobloch, Robert L. Younglof,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American University, 1969), p. 155.

73) “주북 헝가리 부대사(공사) 켈로이 팬들로(Károly Fendler)가 외교부 부부장 에르데이(Erdélyi)에게 보내는 정보 보고, ‘베트남과 루마니아의 관점에서 본 북중 무역관계와 북조선 상황,’ 1968년 1월 3일,” MOL, XIX-J-1-j Korea, 1968, 57. doboz, 1, 00345/1968. 여기서는 박종철·박성용·정은이, 「헝가리의 북한 관련 기밀해제문건에 관한 연구」 『지역과 세계』 제37권 제1호 (2013), 82-83쪽에서 재인용.

74) “끊을 수 없는 동맥·반미구국투쟁의 불길속에서 강화발전되는 민주월남의 교통운수,” 『로동신문』 1966년 8월 25일.

75) “월남 인민과 군인들은 더욱 견결히 싸워 미제를 반드시 타승하고야 말 것이다

설, 복구, 정비되었다.⁷⁶⁾

베트남은 이를 위해 1966년 9월 ‘항미구국 청년지원병 여단’을 조직해 도로와 철도, 철교와 교량들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⁷⁷⁾ 이들은 폭격을 피해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해야 했으며, 도로와 교량에 대한 방공보호 대책, 피해를 입은 도로 및 교량들에 대한 임시 도로와 교량의 부설을 주로 담당하였다. 베트남은 미군 폭격에 의해 파괴된 다리를 빠른 시간 내 복구하기 위해 복구 물자를 교량 인근에 몰래 미리 모아두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⁷⁸⁾ 위와 같이 베트남전쟁 시기 파괴된 교량의 복구 및 건설을 위해 북한에서 실습을 받은 인재들이 긴급 피해복구 현장에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1960년대 북한 내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표적인 교육 현장은 김일성종합대학이었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경제기술을 교육받았다. 또한 이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정세에 대한 강연을 들었으며 베트남 정부로부터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을 공급받아 학습을 진행하기도 했다.⁷⁹⁾ 당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호치민의 저작물을 수록한 단행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⁸⁰⁾

김일성은 자국 내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들에 대한 교육을 ‘베트남의

-월남조선친선협회 대표단 국내기자들과 담화, 『로동신문』 1966년 9월 5일.

76) “끊을 수 없는 동맥-반미구국투쟁의 불길속에서 강화발전되는 민주월남의 고통운수, 『로동신문』 1966년 8월 25일.

77) “길을 지켜 싸우는 민주 월남 사람들, 『로동신문』 1966년 9월 3일.

78) 한국학술정보 위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23_October_1967,”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1: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7_10-12(1)』, 208쪽.

79)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에서 공부하고 있는 월남류학생들을 만나셨다,” 『로동신문』 1967년 2월 12일.

80) “《호지명 주요 저작집(조선문판)》을 출판-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로동신문』 1965년 11월 24일.

자주와 그에 북한의 존중'의 문제로 인식하며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김일성은 1965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내 베트남 유학생 기숙사를 방문하여 “동무들은 호지명 동지의 충실한 전사로 월남로동당의 전투부대로 될 것을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⁸¹⁾ 김일성은 1년 남짓 지난 1967년 2월 11일 음력설을 맞이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들의 기숙사를 재차 방문하였다.⁸²⁾ 김일성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베트남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볼 정도로 베트남의 자주 의식 강화를 위한 그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김일성은 베트남 유학생들의 침실을 직접 둘러보며 생활 형편, 건강상태 및 학습 여건들을 두루 챙기며 그들을 만경대혁명학원생들처럼 보살폈다.

〈사진 1〉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들의 기숙사를 방문한 김일성



출처: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에서 공부하고 있는 월남류학생들을 만나셨다,” 『로동신문』 1967년 2월 12일.

81)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에서 공부하고 있는 월남류학생들을 만나셨다,” 『로동신문』 1967년 2월 12일.

82) 위의 글.

김일성이 베트남 유학생들을 만나 가장 강조한 사항은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베트남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베트남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북한에서 경제, 군사, 기술을 배우지만, 본질적으로 호치민과 베트남을 위한 혁명 후비대가 되라는 요구였다. 쉽게 말해, 몸은 북한에, 정신과 눈은 베트남을 보라는 의미였다. 김일성의 이러한 배려에 베트남 유학생들은 김일성이 김일성종합대학을 떠날 때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그를 환송하였다고 전해진다.⁸³⁾ 이러한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들은 북한-베트남 간 연대 행사, 베트남 고위 간부들의 평양 방문과 귀국시 순안공안에 직접 나가 환영, 환송하는 등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베트남도 북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유학생들을 유치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반을 조직했으며, 이들에 대한 군사교육은 베트남 교육부와 국방부가 담당하였다.⁸⁴⁾ 이 군사훈련반의 조직은 해외 유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전쟁 중인 베트남에서 반제·반미 교육을 위한 현장학습의 성격도 있었다.

이러한 북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들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이들은 고립된 생활로 인해 불평이 높았으며, 주북 베트남 대사관도 이를 고민을 할 정도였다.⁸⁵⁾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베트남 학생들처럼 불합리한 대우와 정치적 위협을 받고 적대감을 안은 채 본국으로 귀환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83) 위의 글.

84) “민주 월남에서 외국 류학생들의 첫 군사 훈련반을 조직,” 『로동신문』 1965년 7월 30일.

85) 박종철·박성용·정은이, 「헝가리의 북한 관련 기밀해제문건에 관한 연구」, 82-83쪽.

없다.⁸⁶⁾ 이것은 당시 경제·국방병진노선과 베트남, 쿠바를 비롯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베트남 지도교원들의 존재도 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학습과 배움에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도 전쟁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해외에서 유학한 인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였다. 예를 들어, 1968년 9월 베트남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동유럽에서 교육, 훈련 중이었던 베트남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들은 귀국해 외국에서 교육받은 전공분야와 관련이 없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배치되기도 했다.⁸⁷⁾ 이것은 분명 베트남 정부의 노동력 배치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국력의 손실이었다.

북한이 베트남 유학생, 실습생들을 자국으로 초청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전쟁이라는 체제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자는 것과 혁명 미래 세대들 간 연대를 강화하려는 양국 간 지도부들의 의중이 일치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들을 해외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아픈 기억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혁명과 최고지도자를 위해 학생들을 자국으로 초청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것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베트남 혁명 보위를 선언했던 김일성과 북한의 약속이었다. 이러한 미래 세대들 간의 유대강화 노력은 미래의 ‘신뢰’ 구축

86)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06_March_1968,” 『CIA 기밀 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4: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8_01-03(2)』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191쪽.

87)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04_October_1968,” 『CIA 기밀 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9: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7_10-1969_01(1)』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51쪽.

을 위한 작업이었다. 이는 또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양국의 의지 표현이었다. 현재와 미래까지 고려한 양국의 유대 강화의 노력은 이 두 나라 간 신뢰를 더욱더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V. 결론

1960년대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 교류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국가 간의 ‘협력’의 의미를 넘어서 ‘체제 공동 생존’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전쟁기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는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해 지도자와 인민들이 가지는 집단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와 협조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⁸⁸⁾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 교류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북한의 대베트남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베트남은 한국전쟁이라는 미국과의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이 있는 북한과의 사회·문화 협력을 통해 전쟁 수행과 이후 복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정책의 정당성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국 간 교류는 집단적 안보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며, 이는 양국 국민들에게 중소분쟁과 미국과의 군사적 압박이라는 공동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해 주었다.

1960년대 북한은 베트남전쟁의 제2전선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⁸⁸⁾ Lloyd Jensen, *Explaining Foreign Policy*, pp. 26-28.

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북한과 베트남은 식민지 경험, 혁명, 분단, 전쟁이라는 공통의 역사·제도적 배경 공유와 상호 인민들 간의 사회·문화 협력을 통해 반제·반미 노선에 기반한 자주와 신뢰를 쌓아 갔다. 이것은 전쟁 상황,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주에 기반한 연대를 통해 자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 노선과 정책이었다.

북한과 베트남에게 자주, 도덕, 신뢰는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자주를 바탕으로 위기 속에서 탄생한 도덕과 신뢰의 개념은 특히 북한의 대내외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신뢰는 상대방을 지지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원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도울 생각이 라는 것, 당신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형성된다. 베트남전쟁기 북한과 베트남 간 ‘위기 속 신뢰’의 형성·발전은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한 북한과 베트남 간 대립이라는 골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효한 개념이라 판단된다. 이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과 벤치 대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사실,⁸⁹⁾ 2019년 2월 14일 베트남이 북한이 요청하면 국가 발전 및 국제통합의 경험을 공유할 것임을 밝힌 사실,⁹⁰⁾ 2021년 1월 북한의 제8차 당 대회에 중국보다 베트남이 먼저 북한에 축전을 보냈다는 사실⁹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외교사적 접근을 넘어 북한-베트남 관계를 사회문화

89) 이진영, 박의명, 「김정은, 도보다리서 ‘베트남 모델’ 말했다」 『MK 매일경제』 2018년 5월 3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05/283483>>.

90) 정승민, 「베트남,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절한’조치 취하기로」 『한국일보』 2019년 2월 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41312078353>>.

9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축전을 보내어왔다-2021년 1월 4일,” 『로동신문』 2021년 1월 7일.

적인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냉전기 최대의 전쟁이었던 베트남전쟁은 주로 미국과 베트남, 중소와 베트남 간 정치·외교·군사 분야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으로 인해 베트남 전쟁기 베트남과 사회주의 약소국들 간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가용한 범위 내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이라는 한계로 인해 좀 더 폭넓고 다양한 분석을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것은 본 연구만의 한계라기보다는 현실 연구 여건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과 베트남 간 연구가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전쟁 당시 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과 베트남 간 외교 통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국내외 베트남 학계와 북한 연구 학계 모두 북한과 베트남 간 외교 통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상술하였듯이 북한과 베트남 간 외교관계에 대한 관심은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발견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외교관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시기와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여러 변수들을 활용해 입체적, 체계적 분석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양국 간 외교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자료를 통한 특정 시기 분석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베트남 자료에 대한 소개가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가용한 로동신문 상 베트남 관련 내용에 대한 종합적 정리, 분석이 필요하다. 혹자는 체제 선전 측면에서 로동신문이 가지는 의미를 지적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외교

분야에서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 신문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관계로 인민들에게 공개되는 외교문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은 동의할 것이다. 이는 로동신문이 가지는 특성상 특정 사건에 대한 '의미'는 왜곡할 수 있어도 '사실'에 대한 왜곡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실과 추가 자료에 대한 탐색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과 베트남에 대한 외교 통사에 대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 접수: 2021년 4월 30일 / 심사: 2021년 5월 24일 / 게재확장: 2021년 6월 7일

【참고문헌】

- 박순서 편집,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벼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2.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_____,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한국학술정보 엮음,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21, 31, 32, 33, 34, 39』,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 Arendt Hannah, *On Revoluti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3.
- Armstrong Charles K, *Tyranny of The Weak: North Korea and the World, 1950-1992*,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 Burchett Wilfred G, *Aga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8.
- Erisman H, Michael, *Cuba's International Relations-The Anatomy of a National Foreign Policy*,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5.
-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Gills B. K, *Korea verse Korea-A Case of Contested Legitim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Jensen Lloyd, *Explaining Foreign Polic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2.
- Kiyosaki Wayne S,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The Politics of Accommodation, 1945-75*,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 Leighton, *Soviet Propaganda As A Foreign Policy Tool*, Lanham: Freedom House, 1991.
- Mehta Harish C, *People's Diplomacy of Vietnam: Soft Power in the Resistance War, 1965-1972*,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9.
- Samuels Richard J,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 Shinn Rinn-Sup, Folan John B, Hederson John W, Hopkins Marilyn G, Knobloch Edward C, Younglof Robert L,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American University, 1969.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Whiting Allen S and Demberger Robert F, *China's Failure: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Mao Era.*, New York: McGrawHill, 1977.

김일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체 게바라전사 한뫼에 즈음하여 아세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꾼띠넨말》 제8호에 발표한 논문(1968년 10월 8일)」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7-31쪽.

김진환,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사회와 역사』 no.5, 2015, 41-70쪽.
도미연,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 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집, 2014, 93-133쪽.

_____,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베트남전쟁기(1954-1975)년을 중심으로」 『군사』 제96호, 2015, 323-362쪽.

_____, 「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전쟁 시기(1954-1975)년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0집, 2015, 307-350쪽

_____, 「1960년대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과 공군·심리전 전문가 파병: 새로 발굴한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9집, 2019, 225-263쪽.

박종철·박성용·정은이, 「형가리의 북한 관련 기밀해제문건에 관한 연구」 『지역과 세계』 제37권 제1호, 2013, 82-83쪽.

Chen King, "North Vietnam in the Sino-Soviet Dispute, 1962-64," *Asian Survey*, vol. 4(9) (1964), pp. 1023-1036.

Clingan Joan, "Project Demonstrating Excellence-Who is We? Toward a Theory of Solidarity: Toward a Future of Sustainability," Ph.D Dissertation Union Institute & University, 2007.

Dominguez, Jorge I, "US-Cuban Relations in the 1980s: Issues and Politic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27, no. 1, (February 1985).

Holsti K, J,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 Studies Quarterly*, vol. 14(3), 1970, pp. 17-34.
- Koh B. C, "North Korea and Its Quest for Autonomy," *Pacific Affair*, vol. 87, no. 4 (December 2014), pp. 294-306.
- Kupchan Charles A and Kupchan Clifford A, "The Promise of Collective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Summer 1995), pp. 52-61.
- Iida Keisuke, "Third World Solidarity: The Group of 77 in the UN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2 (Spring 1988), pp. 375-395.
- Madison Marilyn Annette, "A Trilateral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Afro-Arab Solidar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5.
-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November 2011.
- Mundi S. D, "The Third World: Concept and Controversy," *Third World Quarterly*, vol. 1, no. 3 (July 1979), pp. 119-128.
- O'Brien Erin Elizabeth, "They Have To Take The Long Way To The Shortcut, too: The Politics of Solidarity and Identity," Ph.D Dissertation The American University, 2016.
- Patel Surendra J, "Collective Self-Reliance of Developing Countrie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13, no. 4 (December 1975), pp. 569-583.
- Reshaur Ken, "Concepts of Solidarity in the Political Theory of Hannah Arendt,"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5, no. 4 (December 1992), pp. 723-736.
- Szalontai Balázs, "In the Shadow of Vietnam: A New Look at North Korea's Militant Strategy, 1962-197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4:4 (Fall 2012), pp. 122-166.
- Taylor Moe, "North Korea and The Latin American Revolution 1959-1970,"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20.
- Valdés Nelson P, "Revolutionary Solidarity in Angola," in Cole Blasier and Carmelo Mesa-Lago(ed), *Cuba in the World*,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9.
- Weis Toni, "The Politics Machine: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East German

Support for SWAPO,”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vol. 37, no. 2 (June 2011), pp. 351-367.

Young Benjamin R, “Guerilla Internationalism: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Third World 1957-1989,” Ph.D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18.

『로동신문』 1962년 7월 19일; 1962년 9월 2일; 1962년 11월 17일; 1962년 12월 23일; 1963년 9월 2일; 1964년 2월 7일; 1964년 5월 7일; 1964년 6월 22일; 1964년 11월 25일; 1964년 12월 19일; 1965년 1월 31일; 1965년 2월 3일; 1965년 5월 7일; 1965년 7월 30일; 1965년 8월 2일; 1965년 8월 28일; 1965년 8월 31일; 1965년 10월 16일; 1965년 11월 24일; 1965년 12월 20일; 1966년 1월 6일; 1966년 1월 9일; 1966년 1월 18일; 1966년 3월 16일; 1966년 7월 2일; 1966년 7월 11일; 1966년 7월 14일; 1966년 7월 15일; 1966년 8월 6일; 1966년 8월 25일; 1966년 8월 26일; 1966년 9월 3일; 1966년 9월 5일; 1966년 9월 16일; 1966년 10월 6일; 1967년 1월 14일; 1967년 2월 12일; 1967년 2월 15일; 1967년 3월 15일; 1967년 3월 18일, 1967년 3월 19일; 1967년 7월 17일; 1967년 7월 18일; 1967년 7월 20일; 1967년 8월 19일; 1967년 8월 28일; 1967년 12월 20일; 1968년 2월 21일; 1968년 2월 24일; 1968년 5월 5일; 1968년 5월 20일; 1968년 7월 18일; 1968년 7월 20일; 1968년 10월 22일; 1968년 12월 22일; 1969년 2월 3일; 1969년 3월 18일; 1970년 6월 5일; 1970년 6월 29일; 1970년 7월 20일; 1971년 7월 23일; 1971년 12월 21일; 1972년 7월 14일; 1972년 7월 20일; 2021년 1월 4일; 2021년 1월 7일.

이진영, 박의명, 「김정은, 도보다리서 ‘베트남 모델’말했다」 『MK 매일경제』, 2018년 5월 3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05/283483>).

정승민, 「베트남,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 취하기로」 『한국일보』, 2019년 2월 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41312078353>).

Castro, “Discurso pronunciado en el acto clausura de la Primera Conferencia de Solidaridad de los Pueblos de Asia, África y América Latina (Tricontinental), en el Teatro Chaplin, La Habana, el 15 de enero de 1966. (Español),” 검색일: 2019년 10월 24일,

(<http://www.cuba.cu/gobierno/discursos/1966/esp/f150166e.html>).

A Study on North Korea's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with Vietnam in the 1960s
: Focusing on solidarity events and sup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trainees

Kim, Sang-Bum (IFES, Ky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meaning of North Korea's social and cultural support to Vietnam in the 1960s, focusing on solidarity events and education issues concern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trainees. A total of 14 events for strengthening solidarity between North Korea and Vietnam were planned and carried out, and this was an all-out cultural and diplomatic war involving nationa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 solidarity events with Vietnam covered virtually all social and cultural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but in reality, they were led by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Korea. North Korea used solidarity events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and determine ways to support the Vietnamese peopl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morally.

In the first half of 1968, more than 2,500 Vietnamese students and trainees received education in various fields at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North Korea's Kim Il-sung University. Kim Il-sung ordered them to use the knowledge they learned in North Korea for the Vietnam

Revolution, and these efforts by North Korea led to the formation of trust among future generations.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d even ami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represented in Vietnam's Paris peace negotiations and policy turmoil before and after Ho Chi Minh's death. This memory of trust played a crucial role in forming the current "verified relationship" despite the ups and dow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in Vietnam's invasion of Cambodia in 1978.

Keywords: Independence Solidarity, North Korea, Vietnam, Solidarity Events, Vietnamese students and trainees in North Korea

김상범(Kim, Sang-Bum) —————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 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북한 김정은 시대 위기와 대응-인간의 얼굴을 한 수령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소환」(2021),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